



대행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 '나' 이끌수 있어야 '남'도 이끌수 있어

### 마음공부 · 주인공공부 차이점

**문** 이른바 공부라고 한다면 마음공부가 제일 으뜸가는 공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주인공공에 맡기는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공부와 주인공공부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게 무어나고 묻는다면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이

음과 내 마음이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자기 낯기 이전을 보지 못하니까 중생이라는 말을 듣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못났다고 하기 이전에 제 마음의 근본인 주인공을, 바로 그것이 보배인데 그 주인공을 받아라, 일체만법이 다 거기에 들어 있으니 주인공을 받아라 한 것입니다. 주인공! 하면 거기에 우주의 섭리가 다 포섭되고 일체만법이 다 들어 있으니 그게



그림 · 최주현

“네가 내가되고 내가 내가되고  
모습없는 모습들이 무엇이든 되는  
멋진 묘법이 마음도리에 있어”

지옥고에 빠질 수도 있고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누구라도 이 마음의 도리가 묘법이고 광대무변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마음의 시자(侍者)일 뿐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자기의 근본주인공을 믿고 아래로는 제 몸의 수억 중생들을 돌보면서 밖으로 또 내 식구 내 동포를 한마음으로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묘법이다, 불가사의한 뜻이 거기에 다 있다 이겁니다.

물론 '주인공'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 바꿔부를 수 있지만 마음의 근본이아말로 보배중의 보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할 때에 입으로만 그렇게 부르는데 아니라 '주인공이아말로 수억갑 광년을 거쳐오면서 나를 형성시켰고 모습을 바꿔가면서 행하고 화해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뿌리로서, 삼천대 천세계가 공심으로 공체로 공생으로 공용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합해서 일컫는 것이니까 뜻으로서 '주인공!'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환경에 따라서 사정노릇을 하기도 하고 부하노릇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상인노릇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는게 다 마음먹기에 따른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가고 오는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일체 행동이 다 마음에 달려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일체만법이 돌아가는 것, 저 태양이나 우주 천체까지도 다 마음의 근본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믿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절로 '주인공! 당신 밖에 없어!'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형성시켰고 끌고 왔으니 되는 것도 거기서, 안되는 것도 거기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진정코 믿기에 진정으로 일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나 좀 낫게 해줘.' 이런다면 벌써 놀이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인공이 근본이니까 '주인공밖에는 못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죽는 것 사는 것이 다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시자인 이 몸들이도 다 거기서 풀고 다니는 것이다 하고서는 턱 믿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됩니다. 말하자면 나부터 알아서

그러기에 이 묘법인 마음의 근본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그 광대무변한 마음의 근본을 하찮게 생각해서, 큰 스님네들이나 불 보살이라면 모를까, 우리같은 중생이 어찌 그런걸 알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고 부처님의 뜻을 받지 못하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리가 터지지 못해서 그렇지 부처님과 형상도 같고 부처님 마

나를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남도 이끌어 줄 수 있고 일체제불과 한자리 할 수 있으니, 위로는 부처님을 나와 더불어 모시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능력의 공덕법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를 알면 계율은 저절로 알아지고 지혜도 열려서 스스로의 마음자리에서 빛보다 더 빠르게 오고 갈 수 있고 가서 보고 끌어다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이것은 신비하고 도도하고,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향내를 내고 만가지 열매가 익어 만가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 마음도리 알면 계율·지혜 열매 절로 익어 기복은 자기 무시·부처님 뜻 외면하는 것

부처 현실과 동떨어져, 내 생활을 떠나서 있는게 아닙니다. 바로 생활속에서, 잠자고 먹고 일하는 그 속에서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가면서 하는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병들었다고 합시다. 그 병이 난 것도 주인공에 그렇게 믿고 맡길 수만 있다면 바로 자기가 믿고 나가 는 것이니 아니 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걸 다짐합니다. 자기가 실험 안해보고, 체험 안해 보고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있습니다. 뭐 공부할 것도 없지만 마음도리를 익히지 못한 사람들이 병에 걸릴때 쉬운데 이 도리를 알려고 하면 가령 부처님 앞에 돈을 갖다 놓고 정성을 드리더라도 '일체 제불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바로 내 마음이

요, 당신의 형상이 바로 내 형상이니 어찌 돌이겠습니까? 주인공! 당신밖에는 해결하지 못하지요' 하면서 정성을 드린다면 마음공부 하니 좋고 병도 나을테니 좋고 그 돈을 모아서 또 만물만생을 건질 수도 있으니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묘한 마음도리를 발견하지는 겁니다. 본래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하니까 발견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내 몸을 끌고 다니는데도 이렇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선장이라고 한다면 내 몸 속에, 오장육부의 세포들은 내가 마음을 쓰는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약하게 먹고 '에이, 이렇게 사느니 죽는게 낫다' 한다면 몸

속의 수많은 생명체들이 운행을 하면서도 '나도 죽겠다' 이런단 말입니다. 이걸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를 하려는데 '그쪽으로 가면 삼살방이라 못쓰게 된다'고 누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영 개립칙한 채로 이사를 했더니 안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이면 '삼살방이 어디 있어! 사방이 특 터졌는데, 내 한마음이 일체제불의 마음이고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한마음인데 어찌 삼살방이 불을 지리 가 있었는가!' 하고선 똑같이 이사를 했는데 안되기는 커녕 잘되지만 하더라도 애가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마음공부 한다는 사람이 가령 거기에 걸려서 두려워한다면 그런 공부 왜 합니까? 어차피 이 몸뚱이는 옷 같은 것이라 언젠가 벗어버릴테고 한번 벗지 두번 벗느냐 하고서는 당당하게 나간다면 벗이 불을 지리 가 있었습니까? 그러질 못하고 무서워서 안절부절한다면 그게 미신이고 귀신이고 거기에 매여서 노예로 사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이라면 세 생생애에 노예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마음이 그렇게 보배로운 줄 모른다면 내 마음을 수레바퀴 굴리듯이 굴러 쓸 수 있는 능력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 도리를 모르니 어느 때에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겠습니까.

지금같이 바빠 돌아가는 세상엔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공부라야 합니다.

### 삼성각 명부전공양 꺼림칙

**문** 제 어머님께서 독실한 불자시라 저는 가끔 어머님을 모시고 절에 다닙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절에 가실 때마다 대웅전뿐 아니라 삼성각이나 명부전에도 꼭 공양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왠지 그것이 미신같고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거기에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 불교를 탄압하고 능토를 다 빼앗고 스님네들을 못살게 구니 먹고 살기도 어렵고 공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칠성각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의 불교 163

## 막혔던 샘이 터져 용솨음치게 될 것이니-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일이 가장 좋다. 사람으로 계획을 세워 무엇이 되게 하기에 앞서 오직 믿고 맡김으로써 진리의 근본 원천으로부터 샘이 솟아나게 하라.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체험을 하게 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무한한 능력에 눈을 뜨게 되고 자신에게 저절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다.

것은 자연스럽게 못할뿐 더러 거부한다고 거부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떤 경계라도 맑은 거울에 비친 풍경을 보듯이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있음으로써 경계가 있고, 그 경계마다 내가 원인을 제공했다 고 믿는다면 차라리 그 경계 앞에서 숙연해 질 일이다.

'내게 다가오는 경계란 내가 지은 것이 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거부할 게 아니라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를 걸잡이로 삼아 한 단계 더 발전해 보리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수행자이다. 그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을 향해 크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다.



일체를 다 놓고 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무심이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무심이 되니까 오히려 다 돌리게 된다. 사람이 다 돌리면 모든 것이 다 들어온다. 반면에 경계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면 우선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 전체를 움직이지도 못한다.

내게 다가오는 경계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못하다. 이미 탁된 경계를 거부하는 것은 더 더욱 자연스럽게 못하다. 어떤 경계라도 울만한 까닭이 있어서 온 것이다. 비록 그 인과관계의 진말을 내가 모른다해도 거기에 반드시 내가 개입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내가 살아 있음으로써 경계를 겪게 되는 것이니 일단은 내 탓이다. 고로 다가온 경계를 거부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맑은 경계가 있고 좋은 경계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잘못된 것 잘못된 것이 뚜렷한 것 같다. 그러나 경계가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과거·현재·미래를 다 종합해서 본다면 잘못된 것 잘못된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수행자의 입장에서라면 잘못되고 잘못되고 조차도 없다.

다만 지금의 내 사랑(思量)으로 보니까 살고 좋고 잘되고 잘못되고가 있을 뿐이

다. 잘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는 판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계가 다 나의 진화를 돕는 걸잡이라고 한다면 잘못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니 잘되고 못되고는 내 사랑일뿐 경계는 걸잡이로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계는 그냥 경계인 것이다.

경계를 그렇게 거울에 비친 풍경쯤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처럼 자연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거기에 근심 걱정도, 초조와 불안도, 분노와 회한도 끼어들 자리가 없을 것이니 어찌 자연스럽게 아니하라. 거기에 자만심도 우월감도 붙을 자리가 없을 테이니 어찌 자유스럽게 아니하라.

다만 행동 그 자체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일체의 사랑 분별이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오로지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찬 행동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마다에 사랑으로 토를 달고 분별로 색을 입히려 한다. 이것은 누구 탓이다, 이것은 무엇때문이다, 이것은 불운한 일이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이다, 못나서이다... 참으로 끝이 없다. 그러나 경계마다 꼬치꼬치 따지고 든다해서 다가올 게 안오고 이미 탁된

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쉽게 벗어날 일도 그 사랑 분별때문에 더욱 열리고 설거 나를 용취게 된다. 내 행동만 시들해지게 만든다. 내 생명의 에너지만 손상을 입게 된다.

태양이 내려린다. 바람이 분다. 비가 쏟아진다. 그래도 나무는 자라기를 멈추지 않는다. 태양이 너무 뜨겁다고 원망하지도 않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탓하지도 않는다. 폭우가 쏟아진다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나무는 그런수록 제 뿌리에 의지해서 제 뿌리의 힘을 믿고 역경을 헤쳐가자란다. 나무의 생명에너지는 다만 자라는 행동 그것에 충실할뿐이다.

내 생명의 원천, 그것만을 믿고 가라. 사랑분별을 놓고 오로지 생명에너지로 행동하라. 그러면 막혔던 샘이 터져 용솨음치게 된다. 누구에게나 있는 저 무한량의 에너지가 그대를 가득 채우고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무슨 잘못되고 잘못되는 경계 따위가 걸리적 거릴것인가.

협찬: 한 마음